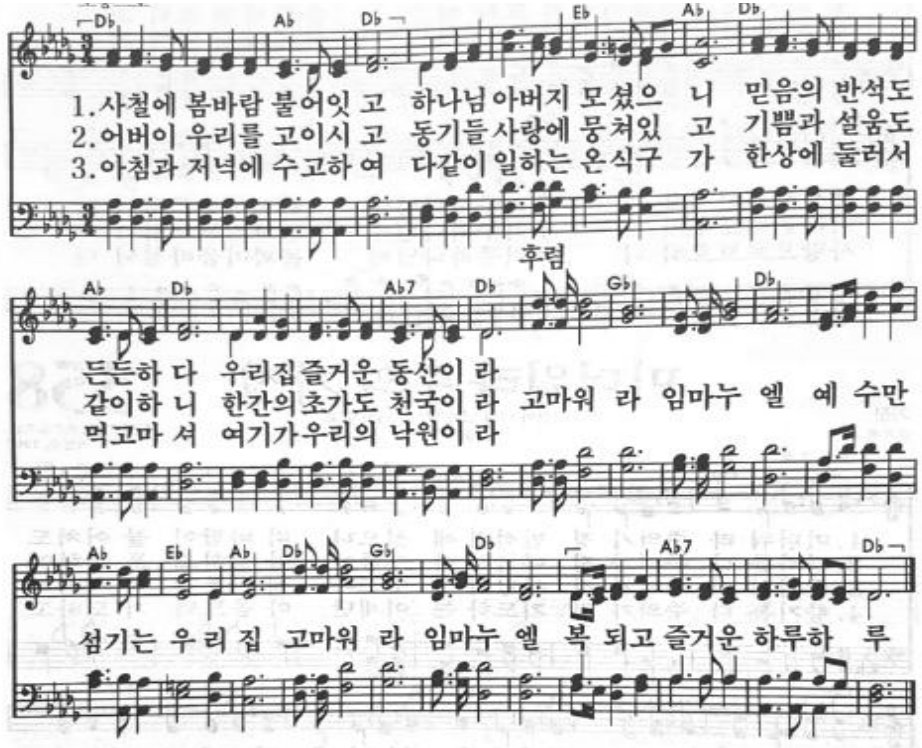
찬 송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코로나로 인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지라도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이 함께 드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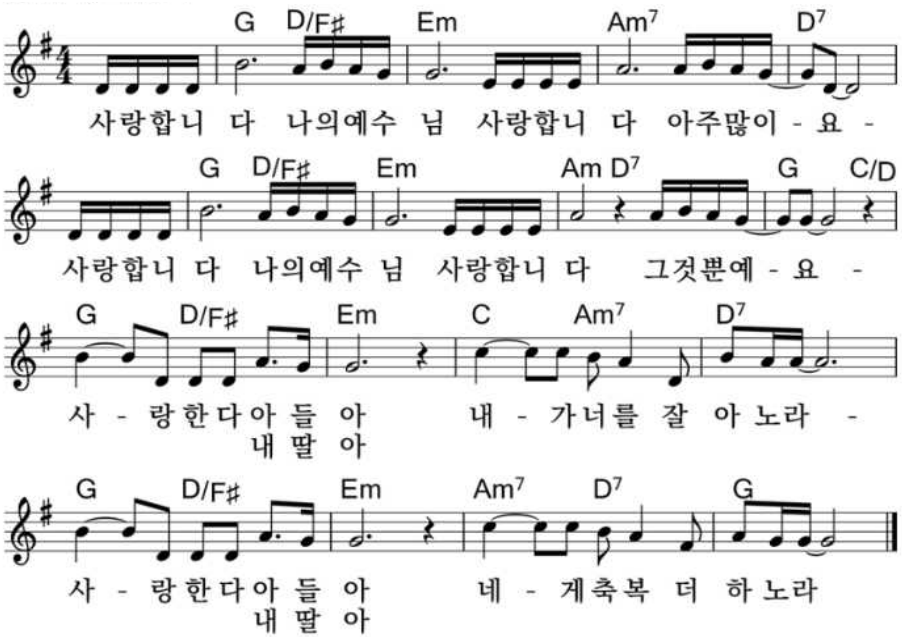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묵 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 이
신앙고백을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같 이



기 도 …… 가족중에서

성경봉독 …… 빌립보서2장 1-3절 …… 가족이함께 함 독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말 씀 …… 하나님 은혜 …… 인 도 자

2022년 시작한 것이 오래지 않은 듯한데, 벌써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심각한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조차도 진부한 것으로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 장에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홀로 살아감이 아니라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명절이 성령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인정하며, 함께 더욱 연합하며 화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져 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2절)

2절에 보면, "같이하여", "같은", "합하여", "한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켜가는 진실한 가족 공동체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3절)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높여 줄 때에 우리를 나 중심적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 기간 가족 구성원들끼리 더욱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사랑과 이해함과 너그러움으로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같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133편 1-3절에 보면, 서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되길 축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